

## 보국전기공업(주)

주소:(711-891)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고봉리 225  
전화:053-615-2111  
팩스:053-614-3552

보국전기공업(주)는 1961년 8월 대구 중구 동인동에서 발전기, 모터, 변압기수리전문점 보국전공사로 출범한 이래 40년 가까이 발전기와 함께 해왔으며 <신기술창조로 승부를 건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160명의 임.직원 모두 기술개발만이 치열해진 국내외 경쟁사회에 대처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그동안 정진해온 축적된 기술경험을 바탕으로 가스터빈 발전기, 몰드변압기, 통신장비 등 전력전자 분야에 이르기까지 심혈을 기울여 깨끗한 전기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보국전기는 디젤엔진발전기 및 몰드변압기 등 관련업계 선두주자가 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 회사성장기

창업 초기에는 미국과 독일 등 전기공업 선진국의 제품정비 및 연구를 통해 발전기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한 보국전기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지난 '67년 고성능 국산발전기 개발에 성공하였다. 또 '60년대 말부터 일기 시작한 섬유산업의 호황과 더불어 '68년 LOOM전동기에 투자,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국내유수의 섬유기계 제작업체에 공급하여 우리나라 경제산업발전에 큰 공헌을 이룩했다. 이로 인해 발전기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자 모든 직원이 안일한 생각으로 제품생산 및 판매에 급급한 나머지 신기술 개발 및 투자에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경기가 둔화되면서 회사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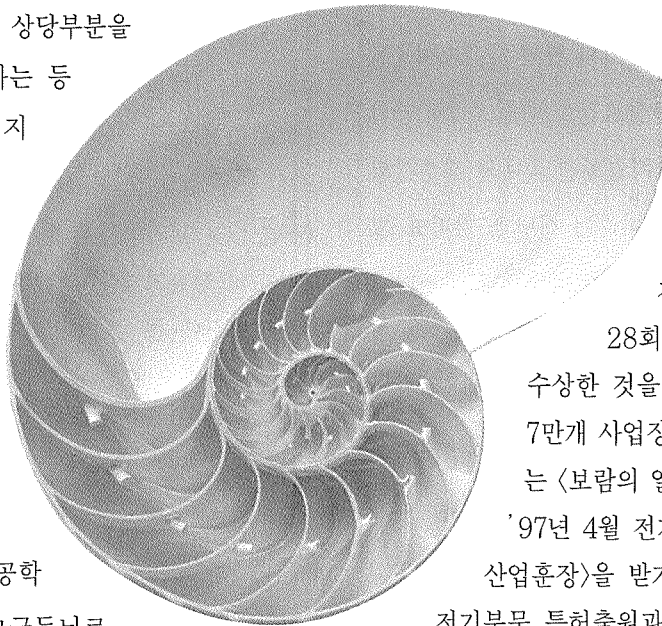


그러나 이에 굴하지않고 광종보 대표이사는 제2의 도약을 위해 기반을 확실히 구축해 나가기 시작했다. 전직원과의 개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면담을 통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창의적 업무진행을 위해 회사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어 직원들의 자신감을 회복시킴으로서 축적된 생산 기술력이 비로소 발휘되어 생산성 향상 및 불량감소 등으로 원가 및 품질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전기공업 선진국인 일본에 역수출하게 됨으로서 재도약의 확실한 토대를 구축하였다.

이로 인해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연구비용으로 재투자 하는 등 신제품개발에 남다른 의지를 보여왔다

### 기술개발

보국전기공업의 기술개발의 산실은 지난 '88년 3월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전산장비 설치와 전기기계, 전자공학을 전공한 20여명의 고급두뇌로 구성된 기술연구소이며 기술개발, 연구에 전력을 다하여 선진국의 전기기술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전기기술 개발촉진을 위하여 일본의(주)영흥기연(EIKO GIKEN)과 OHATSU(주) 그리고 노르웨이 DRESSER RAND 사와 기술제휴를 체결하여 고풍력의 대형발전기에 대한 설계기술과 생산기술을 단 기간 내에 성공하여 현재는 2,000kW이상의 발전기 생산과 AVR, UPS 및 배전반의 성능향상에 기여하였다.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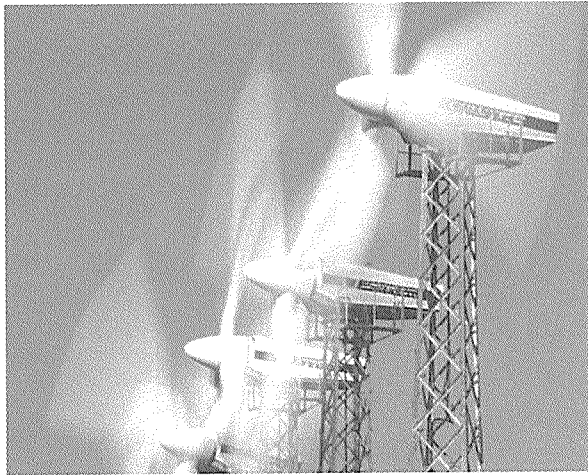


한국전력이 시행한 도서지방 전력화사업의 하나인 백령도 내연발전소(1,500kW3대) 기자재 부문을 수주, 관련업체에 주목을 받기도 하였으며 신뢰성99.9%의 가스터빈 발전기를 한국통신등에 제작납품 중이다. 기술개발 못지않게 고품질 생산에 전력하는 보국전기는 품질제일주의 경영에 따라 사내 품질경영본부를 설치하여 업계에선 최초로 '95년에 ISO9001을 획득하여 제품의 우수성을 인증 받기도 했다.

내수중심의 성장에서 탈피, 해외 중전기 산업에서 수출활로를 모색한 공로가 대외적으로 인정되어 보국전기는 지난 '91년 정부로부터 제 28회 무역의날<대통령표창>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92년에는 전국 7만개 사업장 가운데 3개사만이 선정되는 <보람의 일터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97년 4월 전기산업발전 유공자로 <석탑 산업훈장>을 받기도 하였다. '99년에는 발전기부문 특허출원과 수출유망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고 '00년 벤처기업 등록과 '01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우량기술기업으로 선정되어 품질 및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 수출력 증대

이러한 기술개발의 노력으로 품질우수성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도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여 지난 '89년부터 일본, 미국, 대만,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예멘 등지로 수출을 시작한 이후 3년째인



'92년에는 1백만불 수출탑을 받기도 했다. 특히 對 일본 수출에서는 연평균 1억5천만엔을 벌어들였고 세계 굴지 전기회사에 중대형 발전기를 수출하는 실적을 올리기도 하였다.

IMF등으로 국내의 경기가 어려워진 '98년도부터는 수출에 전력을 기울여 '99년 유럽과 아시아등지에 1백 2만불 상당의 발전기를 선적하였다.

2001년 올해는 인도네시아 유전개발 상용터빈발전기 2,000kW 6대 입찰하여 기존의 납품 경력 및 기술력으로써 미국의 굴지의 기업인 솔라 등을 제치고 6백 5십만불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보국전기공업(주)의 기술력을 세계시장에 다시 한번 과시하는 쾌거가 아닐 수 없으며 임직원 모두 몸담고 있는 회사가 대기업은 아니지만 기술만큼은 세계일류가 되자는 의지의 결과라고 여겨진다. 세계적인 경쟁사와 비교할때 당사의 또 하나의 장점은 자체 시공팀을 구성하여 해외 P/J에 대해 SUPERVISOR를 파견하여 시공 및 시운전 등의 일체의 SERVICE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인도네시아 현지인의 TEST 및 입회 검사를 마치고 3대를 선적한 상태이고 마지막 선적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2001년 말부터는 미국 현지에 지사를 설립하여 해외 PLANT 및 발전기 시장을 공략하여 수출력 증대에 힘써 나갈것이다.

### 새로운 시대의 적응

보국전기는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전직원이 혼연일체를 이뤄 생동감있는 생산현장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직원의 건의사항을 적극수렴하여 노사간에 문제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안정적인 노사관계만이 양질의 제품과 생산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는 경영방침에 따른 것이다. 또한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예측하기 힘든 21세기의 기업환경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환경에 적응력을 길러야 하며 이는 GLOBAL화에 의한 단일시장화가 가속됨에 따라 무한경쟁 시대가 전개되어가는 기업환경속에 INTERNET SITE를 통한 신속한 업무 추진 및 소량 다품종의 고부가가치의 발전기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어 나아갈 것이다

품질우선을 통한 경쟁력만 갖춘다면 세계 발전기 시장에서 우뚝설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1백60여명 전직원과 21세기 세계1위 발전기 메이커 달성을 위한 신기술창조 및 기술일류기업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